# _어린이 생물도감

날짜 : 2025년 11월 7일 1:44 오전

꽝꽝나무 / Ilex crenata Thunb.

| 구분 | 설명 |
|---|---|
| 생물분류 | 식물 |
| 속국명 | 감탕나무속 |
| 과국명 | 감탕나무과 |

| | |
|---|---|
| 과명 | Aquifoliaceae |
| 일반특징 | 요약설명 : 감탕나무과 상록 활엽 관목으로 우리나라의 제주도, 전라도, 경상남도에서 자라며, 중국, 대만, 일본에서도 볼 수 있다.<br>분포지역 : 중국, 대만, 일본; 제주도, 전라남북도, 경상남도.<br>형태 : 상록 활엽 관목.<br>크기 : 높이 3m.<br>꽃색 : 백색<br>개화기 : 5월,6월<br>잎은 어긋나고 타원형 또는 긴 타원형이다. 예두 또는 무딘 모양이다. 겉면은 윤기가 나는 진한 초록색이고 뒷면은 연한 초록색이며, 작은 샘이 있다.<br>꽃은 암수가 각각 다른 그루에 따로 달려 있으며, 7월 초에 핀다. 수꽃은 짧은 총상꽃차례 또는 꽃대가 둘 이상으로 갈라지는 총상꽃차례로 3~7개씩 달리고 퇴화된 암술이 있다. 암꽃은 잎겨드랑이에 하나씩 달리고, 꽃대가 길며, 퇴화된 수술 4개와 4실인 씨방이 하나 있다.<br>열매는 핵과고 9월 말~11월 중순에 익으면 검은색이 된다.<br>뿌리는 잔뿌리가 많지 않다. 나무껍질은 회백색이고, 가지와 잎이 무성하며 어린 가지에는 잔털이 있다. 가지가 치밀하고 잎이 촘촘히 나 있기 때문에 좋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, 나무의 기운이 튼튼하고, 줄기가 훼손되었을 때 새로운 줄기를 만드는 능력도 뛰어나다.<br>반그늘 또는 햇볕이 드는 곳에서 잘 자란다. 중부 지방의 남쪽에서는 겨울을 날 수 있으며 16~30℃가 생장하기에 적정한 온도이다. 깊이가 깊고 수분이 있는 기름진 땅과 진흙이 적게 섞여 있는 보드라운 흙을 좋아하며, 그늘을 견디는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나무 밑에서도 잘 자란다. 대기오염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지만 건조한 곳에는 약하다.<br>10월에 씨앗을 얻어 껍질을 제거한 후 다음 해 봄에 씨를 뿌리거나 7월 초에 꺾꽂이를 하는 방법 등으로 번식시킬 수 있다.<br>전라북도 부안군 중계리의 꽝꽝나무 군락은 월동한계선으로서의 성격도 인정되지만 일제시대 때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당시에는 건생식물(건조에 견디는 성질이 큰 식물) 군락으로서 더 가치가 인정되었다. |